



고객을 유혹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농특산품의 포장을 디자인하라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채혜성 063-238-2663

농업의 6차산업화가 본 궤도에 진입하면서 지역별 농산물에 제조·가공기술을 접목해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포장 디자인의 현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특산품의 품질 제고와 활로 모색을 위해 노력한 우수 포장디자인 사례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디자인을 개선한 사례 등을 통해 농특산품의 포장디자인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제3회 농촌마을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공모전 대상 '모후실에서 만난 차'



농특산물 포장디자인의 중요성

- 포장디자인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순간에 모든 정보를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고, 제품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 농특산품도 예외는 아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들은 1차 농산물을 가공·포장하고 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따라서 농업경영체들은 6차산업화 상품개발 과정에서 포장디자인을 통해 스스로의 경쟁력을 형성하고, 자체 브랜드를 구축하며 대표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 ① 상품 정보를 충실히 전달한다. 농특산품 포장 디자인을 줄어든 채 안전하게 보관한다.
- ② 시각적 표현을 통해 소비자와 교감한다. ④ 브랜드 전략을 더하여 다른 제품과 차별화한다.



우수 포장디자인 소개

-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제3회 농촌마을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전국에서 출품된 공모작 중 11개 우수 포장디자인을 선정하였다. 이들 제품들의 포장디자인 특징점을 살펴보자.



제3회 농촌마을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공모전 대상

'모후실에서 만난 차'

전남 순천의 '모후실에서 만난 차'는 돋보이는 브랜드 네이밍과 전용 서체,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패키지 박스를 2중과 3중 세트로 각각 제작하여 소비자가 기호와 가격을 고려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친환경 재료와 경량화된 포장재를 사용하여 운송과 보관의 편의를 높였다.



제3회 농촌마을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공모전 최우수상

'소백산 아래'

강원 원주의 '정토담'은 신뢰와 정직, 자연을 담은 이미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요소를 간결하고 담백하게 구성하였다. 흙을 모티브로 한 색상을 선정하여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는 물론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외박스 내 트레이를 이용하는 소량 세트 구성으로 저가의 선물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3회 농촌마을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공모전 최우수상

'정토담'

경북 영주의 '소백산 아래'는 눈에 잘 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로고가 돋보인다. 세부 상품마다 적절한 실사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품 특성을 뚜렷하게 전달하고 있다. 전통식품인 부각의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위해 감성적 캘리그래피를 활용하였다. 특히 한번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퍼 파우치를 활용한 소포장을 통해 남녀노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포장디자인 개선 사례

- 6차산업화 농업경영체들은 초기에 개발한 상품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포장디자인 역시 시행착오를 거치며 더 나은 디자인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그중 소비자 반응과 전문가들의 조언, 다른 상품과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브랜드 명	개선 전	개선 후
<p>쌀맛 나는 농장</p>		
<p>경기 이천의 '쌀맛 나는 농장'은 기존의 포장에 정보량이 과다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브랜드 로고, 제품명 등의 위치를 재정리하고, 레이아웃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돈하였다.</p>		
<p>초정백리</p>		
<p>충북 청주의 '초정백리'는 전통주와 식초에 적용된 회화가 달라서 한 업체의 제품으로서 통일성이 떨어졌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통주의 회화 모티브를 식초에도 적용하여 일관성 있는 이미지로 통합하였다. 또한 식초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가독성 있게 재정리하였다.</p>		
<p>토우리</p>		
<p>경남 함안의 '토우리'는 반조리식품으로서 안전성 향상을 위해 기능성을 높인 레토르트 파우치를 활용하였고, 파우치 앞면과 뒷면에 식품 정보 등 표기 내용을 잘 분배하여 정리하였다</p>		
<p>천수만 전통생강한과</p>		

충남 서산의 '천수만 전통생강한과'는 편강 용기와 외박스의 디자인 콘셉트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통일성을 부여하였다. 편강 용기는 원통의 종이박스를 활용하여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여하였고, 선물용 세트포장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잘 반영하였다.



농업인 포장디자인 역량 강화의 필요성

- 사실 농촌 현장의 포장디자인 분야는 인프라가 취약하여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컨설팅을 받는 경우에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수행절차 때문에 의사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완성 단계에 이르러 아쉬운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특산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마케팅을 고려한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교육을 하여 농특산품의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농업인의 포장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규모에 맞는 맞춤형 포장디자인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 **입문단계**로는 신선 농산물 중심의 현장 직거래 농업인을 대상으로 포장디자인의 기본 의미와 신선 농산물 포장 법규 인지, 현장 직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포장디자인 실습 등이 있다.
 - **심화단계**는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포장디자인의 트렌드와 마케팅을 이해하고, 가공농산물 법규 및 디자인권 출원 등을 학습하는 단계이다.
 - **응용단계**는 기존에 판매하는 농특산품의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파생 상품을 개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포장디자인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과대포장방지법과 디자인 맵 실습 등을 학습하는 단계이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물 포장을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나 농업인 교육기관에서 포장디자인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인 디자인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가이드'를 개발하여 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da.go.kr>)를 통해 e-book으로 제공하고 있다.

CheckPoint

농특산품 포장 디자인 꼭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법적 표시사항	브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코드 인쇄 상태는 양호한가? ▪ 분리배출 표시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 상표등록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 법적 표기사항과 글씨 크기는 규정에 맞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특성을 살린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 구매 소비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해 본다. ▪ 슬로건과 브랜드 로고 등이 다른 상품과 차별화되는가?
패키징	시각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재, 완충제는 환경을 생각해서 적당량 사용하고 있는가? ▪ 내용물에 비해 포장 단가가 과한 것은 아닌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과 영어가 혼잡하게 배열되어 상품정보가 잘 읽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 수출을 고려한다면 영문을 신중하게 배치해야 한다. ▪ 로고, 글자, 사진 등을 구성할 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배치하였는가?

